현대소설연구(제89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3.03.89.317

이인직 문학의 주변(2)*

-무라이 겐사이(村井弦斎)의 『피눈물』(血のなみだ)과 관련하여

표 세 만**

요약

한국 최초의 근대 문학 『혈의 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 이인직의 생애, 그 중에서도 그가 일본에서 체득한 문학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알아야 한다. 이인직이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일본 문단에서 가장 유행했던 것이 '가정소설'이다. 가정소설 작가 중 오늘날 거의 잊힌 작가인 무라이 겐사이(村井弦齋)는 중요하다. 그는 정치 논설 중심의 『호치 신문』(報知新聞)이 대중 신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 신문에 통속적인 대중소설을 연재하여 당대 최고의 유행작가가 된다. 그리고 겐사이는 이인직의 『혈의 누』와 같은 제목의 소설인 『피눈물』(血のなみだ)이란 작품을 1895년 발표한다. 이 작품은 청일전쟁 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간섭을 배경으로 한다. 삼국간섭으로 남편을 잃은 주인공 모녀가 고난을 겪다가 이를 극복하고, 그 딸이 성장한 후 결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로 그 구조는 이인직의 『혈의 누』와 비슷하다. 또 '피눈물'이란 키워드를 매개로 외세에 의해 침탈당한 국권과 평범한 한 가정의 파탄 과정을 관련지어 그리고자 했던 두 작가의 창작 의도 또한 같다. 이는 정치소설의 통속화, 대중화 과정에 나타난 일본 가정소설의 계몽성과 상업적 통속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인직 문학의 특징이기도 하다.

주제어: 이인직, 『혈의 누』, 신소설, 무라이 겐사이(村井弦斎), 『피눈물』(血のなみだ), 가정소설(家庭小説)

* 본 논문은 2021학년도 군산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군산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목차

1. 들어가며
2. 이인직과 『미야코 신문』(都新聞), 그리고 『호치 신문』(報知新聞)의 무라이 겐사이
3. 무라이 겐사이 『피눈물』(血のなみだ)의 줄거리
4. 『피눈물』과 『혈의 누』의 비교
5. 나가며

1. 들어가며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의 통역관으로 참전했던 이인직은 그해 5월 귀국하여 신문 창간 및 계몽 활동에 투신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1906년 7월 22일 『만세보』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인 『혈의 누』를 게재하기 시작하는데, 이 작품은 연재와 동시에 지대한 관심과 인기를 얻으며 이후 이른바 '고전소설'과 대비되는 '신소설' 출현의 발단이 된다. 이렇게 중요한 문학사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인직의 생애는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특히 그가 문학 창작의 소양을 체득했을 일본 체류 기간에 어떠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어떻게 한국 근대 문학의 '새로움[新]'으로 구현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대한제국 관원 이력서』[1]에 기재한 바에 의하면 이인직은 공식적으로 1900년 2월 일본에 유학했고 이후 국비 유학생으로 추가 선발[2]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인직과 관련해 "拾餘年 海外文明國에 滯在ᄒᆞ야 文明空氣를 吸収ᄒᆞ며 文明學術을 鍊習ᄒᆞ얏고 其歸國也에 新聞의 機關을 掌握ᄒᆞ며 小說의 著術을 發行"[3]했다는 이야기 또한 지속해서 회자된다. 이인직의

1) 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내 「한국 근현대 인물 자료」.
2) 「私費移官」(『황성신문』, 1900.3.13.)
3) 「圓覺社觀光의 鄕客談話」(『황성신문』, 1908.11.6.). 그 밖에도 「演劇·映畵, 劇界·映畵界의

귀국 시점이 1904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10여 년 전이면 청일전쟁이 있던 1894, 5년에 해당한다. 이인직이 일본에 체류하며 접했을 동시대 일본 문학은 최대한으로는 1894년부터 1904년까지의 10여 년 동안, 또 최소한으로는 1900년부터 1904년 귀국 때까지의 문학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당연히 그 전후한 여러 일본 문학작품을 접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가 체류했을 당시 크게 유행했던 아래와 같은 일본 문학은 그의 주요한 관심사였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일본 베스트셀러 작품을 정리해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1894년부터 1904년까지의 베스트셀러〉[4]

출판연도	작가명	작품명	출판사	비고
1894	志賀重昂	日本風景論	政教社	
1895	高山樗牛	滝口入道	春陽堂	
1896	森田思軒 訳	十五少年	博文館	번안소설
	村上浪六	当世五人男	青木嵩山堂	
1897	尾崎紅葉	多情多恨	春陽堂	
	若松賤子 訳	小公子	博文館	
	村井弦齋	日の出島	春陽堂	1902년까지 출간
1898	尾崎紅葉	金色夜叉	春陽堂	1907년까지 출간
1899				
1900	徳富芦花	不如帰	民友社	
	菊池幽芳	己が罪	春陽堂	1901년까지 출간
	押川春浪	海底軍艦	文武堂	

先驅者, 榮光의 朝鮮先驅者들!!」(『삼천리 제2호』, 1929.9.1.)은 "新小說 通俗小說을 지어서 (雉岳山 鬼의 聲 等)을 출판한 故 菊初 李人稙씨가 정변으로 10여 년 동안이나 日本에 망명"했다고 전한다. 또 小松緑는 『明治外交秘話』(1936.10.11.)에서 1910년 여름에 이인직이 고마쓰를 방문, 그때부터 "十五年以前に趙重應と共に日本に亡命"했다고 이인직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고 전하고 있다.

4) 이 표는 澤村修治의 『ベストセラー全史近代編』(筑摩書房, 2019.7)에 수록된 「明治の歷代ベストセラーリスト」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참고로 위 출판연도는 단행본 간행연도로 초출 신문 연재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

1901	德富芦花	思出の記	民友社	
	黒岩涙香 訳	岩窟王	扶桑堂	1902년까지 출간
	国木田独歩	武蔵野	民友社	
	中村春雨	無花果	金尾文淵堂	1903년까지 출간
1902	黒岩涙香 訳	噫無情	扶桑堂	뒤마의 『레미제라블』
	矢野龍渓	新社会	大日本図書	
1903	菊池幽芳	乳姉妹	春陽堂	
	小杉天外	魔風恋風	春陽堂	
	徳富芦花	黒潮	黒潮社	
	幸田露伴	五十塔 · 血紅星	青木嵩山堂	
	村井弦齋	食道楽	報知新聞社	
1904	木下尚江	火の柱	平民社	
	木下尚江	良人の告白	平民社	(下편은 由分社, 続편은 金尾文淵堂)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청일전쟁부터 러일전쟁 종결까지 일본에서는 대중적 통속소설인 '가정소설', '군국소설', 또는 초기 사회주의적 경향소설이 문단의 주류를 형성한다. 이 중에서 '가정소설'의 유행은 괄목할 만한데, 오자키 고요(尾崎紅葉)의 『다정다한』을 비롯한 『금색야차』, 도쿠토미 로카(徳富芦花)의 『불여귀』는 물론이고, 기쿠치 유호(菊池幽芳), 나카무라 슌우(中村春雨), 고스기 덴가이(小杉天外) 등 위에 언급한 작가 대부분은 당대의 대표적 가정소설 작가들이다. 그뿐 아니라 일본 근대문학사에서 '사회소설'로 분류하는 로카의 『흑조』(黒潮)나 기노시타 나오에의 『불기둥』(火の柱) 및 『양인의 고백』(良人の告白) 또한 가족제도의 부조리함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가정소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중에서 이인직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인물이 무라이 겐사이(村井弦齋)란 작가다. 당대 최고의 유행 작가였지만 오늘날

완전히 잊힌, 또는 철저하게 방계 통속작가로 취급받는 겐사이는 이인직의 『혈의 누』와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이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겐사이는 이인직의 『혈의 누』와 같은 제목인 『피눈물』(血のなみだ)이란 소설을 썼기 때문이다.

위 표에 나오는 겐사이의 첫 번째 베스트셀러 소설 『히노데 시마』(日の出島)는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여주인공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유능한 연구자들을 지원, 사회 각 분야와 가정의 개량을 이뤄낸다는 이야기로 "당시의 정치, 사회, 국제문제, 과학, 문학, 교육에 관한 것부터 연애, 결혼, 가정생활 등"[5]을 다각적으로 그려낸다. 1896년 7월부터 1901년 4월까지 만 5년 가깝게 『호치 신문』(報知新聞)에 연재하였고, 14권짜리 단행본으로 발행된 이 장편소설 또한 가정 내에서 각별한 인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했던 것이다. 또 다른 베스트셀러 소설인 『식도락』(食道楽)[6]은 근대 식도락 문화의 원조 작품으로 가정에서 요리할 수 있는 음식 이야기를 소설체로 썼는데, 이 "『히노데 시마』나 『식도락』 등은 오늘날 읽는 사람이 드물지만, 분명 한편으로는 가정소설"[7]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청일전쟁 이후부터 러일전쟁 후 이인직이 귀국할 때까지 일본에서는 이렇게 '가정'과 관련한 소설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 유행했던 이런 가정소설과 이인직의 문학을 관련지어 고찰한 논문은 거의 없다.[8] 바꿔 말해 이인직이 접했을 동시대 일본 문학의 맥락 속에서 이인직

5) 「村井弦齋」(昭和女子大学近代文学研究室 編『近代文学研究叢書 第27巻』, 1967.8.20.) 284면.
6) 이 작품 또한 1903년 1월 2일부터 시작하여 1906년 12월 30일까지 『식도락』 춘하추동(春夏秋冬) 및 『속편 식도락』의 춘하추동 등을 『호치신문』에 연재했고, 1907년 4월까지 각각 단행본으로 간행된다.
7) 瀬沼茂樹 「家庭小説の展開」(1957.12. 『文学』), 인용은 『近代日本文学の構造1』(1963.3) 313면.
8) 다만 이인직의 일본 체류와 관련해서는 다지리 히로유키 『이인직 연구』(2006.7, 국학자료원) 및 구장률의 「신소설 출현의 역사적 배경」(2006), 강현조의 「이인직 소설의 창작 배경 연구」(2008.8), 졸고 「이인직 문학의 주변-동경정치학교와 마쓰모토 군페이(松本君平)를 중심으로」(2019) 등의 선행연구가 있지만, 가정소설, 그중에서도 무라이 겐사이의 『피눈물』과의 관련성

의 신소설을 살펴본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 신소설의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던 통속적인 일본의 작품, 특히 한국의 전근대 가정소설과는 이질(異質)의 1900년대 일본 가정소설을 염두에 두면서 『혈의 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혈의 누』와 동명의 작품 『피눈물』을 작가 겐사이의 문학 역정(歷程)과 함께 고찰함으로써 그 관련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이인직이 추구했던 문학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이인직과 『미야코 신문』(都新聞), 그리고 『호치 신문』(報知新聞)의 무라이 겐사이

이인직과 무라이 겐사이의 『피눈물』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알아야 할 인물이 지즈카 레이스이(遲塚麗水)다. 레이스이는 이인직이 『미야코 신문』에 수습기자로 근무할 때 사회면 기사를 쓰기도 했지만, 주로 신문에 소설을 싣고 있었다. 그러나 레이스이의 소설은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듯하다. 다만 그의 문장 중 기행문만큼은 이후에 많은 문장 교범에 실릴 정도로 큰 호평을 얻었다.[9]

특히 이인직의 일본어 소설 『과부의 꿈』(寡婦の夢, 1902.11.28.~29, 『미야코 신문』)은 레이스이가 일본어를 직접 보정(補正)했다. 신문 기사에는 '조선 문학'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과부의 꿈'이란 제목을 붙이고 "한인(韓人) 이인직 고(稿)"라 적은 다음 그 옆에 "레이스이(麗水) 보(補)"라 표기

을 논한 논문은 아직 없다.

9) 예를 들어 지즈카 레이스이는 「소설가로서는 제2류 이하이지만, 시취(詩趣) 기행문은 실로 독무대다.(小説家としては第二流以下なれども、詩趣紀行文は実に獨壇也)」(「紀行」 『少年文集』, 1896.9), 위 문장은 「遲塚麗水」(昭和女子大学近代文学研究室 編 『近代文学研究叢書 第49巻』, 1979.6.15.) 472면에서 재인용.

했다. 이인직이 원고를 썼고 당시 『미야코 신문』 편집주간인 레이스이가 이를 보완했다는 말이다. 레이스이가 보완하여 덧붙인 부분이 어디인지, 혹은 어떤 부분을 첨삭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인직의 습작 시절, 문장의 표현 방법에 레이스이가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레이스이와의 관계는 비단 『미야코 신문』 시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1909년 연말 이인직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부러 레이스이 집을 방문[10]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관계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듯하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던 레이스이는 『호치 신문』에서 문필활동을 시작했고, 무라이 겐사이와 문학적으로 대단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 겐사이가 정치소설 『경국미담』의 작가 야노 류케이(矢野竜渓)의 후원하에 『호치 신문』에 정식 기자로 입사한 것이 1890년 4월, 뒤이어 레이스이가 그 해 여름에 입사한다. 당시 유럽과 미국 등지를 유람하며 각국 신문제도를 돌아보고 온 류케이가 정론(政論) 중심의 『호치 신문』을 보도(報道)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이때 신문 대중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신문 연재소설에 두 사람도 함께 참여한다.

입헌개진당의 정당 기관지적 성격이 짙었던 대신문(大新聞) 『호치 신문』을 대대적으로 개편 하면서 류케이는 일본 최초의 SF소설이라 불리는 『우키시로 모노가타리』(浮城物語)를 본인이 직접 연재한다. 류케이가 대신문 『호치 신문』에 통속적인 소설을 연재한 것도 화젯거리[11]였지만, 소설 자체의 문학성도 논쟁거리[12]가 된다. 『우키시로 모노가타리』가 연재

10) 「李人稙ノ行動」(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外務省外交史料館) 所収, 『伊藤公爵薨去後ニ於ケル韓国政局並ニ総理大臣李完用遭難一件』, 1909.12~1910.10)에 의하면, 이인직은 1910년 1월 25일 신메이 정(神明町)에 있는 지즈카의 자택을 방문하고 있다.

11) 『우키시로 모노가타리』가 「지상(紙上)에 연재되자 다른 대신문(大新聞)은 모두 기괴천만(奇怪千万)이라고 저주했다. 대신문의 타락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青木武雄 『報知七十年』, 1941.6.10. 報知新聞社) 29면.

12) 졸고, 「우키시로 모노가타리 논쟁(浮城物語論爭)의 의의-1890년대 〈문학〉의

될 때,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나 모리 오가이(森鴎外),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우치다 로안(内田魯庵), 이시바시 닌게쓰(石橋忍月) 등 당대 내놓으라 하는 문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른바 「우키시로 모노가타리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류케이 등 『우키시로 모노가타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쇼요가 『소설신수』(小説神髄) 등에서 말한 것처럼 인정세태(人情世態)의 사실주의 소설만이 소설이 아니라 그 영역은 훨씬 광대하며, 또 모름지기 소설이란 대중적 설득력과 재미를 겸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독자가 지루해하지 않고 한 장 한 장, 한 회(回) 한 회, 아무 생각 없이 전부 다 읽게 하려면 세밀하게 적고 싶은 글도 줄여야 하고, 길게 쓰고 싶은 사항도 생략하여, 꼬리 자르고 지느러미 자르고 진정한 알짜배기만을 내놓아야 하는데, 과연 그 목적을 이뤘는지 아닌지, 한 회를 읽고 난 다음, 다음 회차를 더 읽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이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의 글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 책[우키시로 모노가타리-논자 주]은 각별하게 회수도 많고 규모도 커 이 부분만큼은 더욱 주의했다.)[13]

신문 개편의 중심에 사장인 류케이 이외에 편집주간인 모리타 시켄(森田思軒)이 있었는데 그는 "[쥘] 베른의 『15소년』이나 위고의 번역 등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당시의 언문일치운동에도 크게 공헌"[14]했다. 또 모리타 시켄의 언문일치운동을 포함한 신문 대중화 작업의 일환으로 겐사이 및 레이스이, 그리고 하라 호이치안(原抱一庵)과 무라카미 나미로쿠(村上浪六) 등은 『호치 신문』의 정기 구독자에게 일요부록(日曜付録)으로 『호치 총화』(報知叢話)라는 소설집을 발송한다. 이때의 겐사이, 레이스이, 호이치안, 나미로쿠를 '호치의 사천왕'(報知の四天王)[15]이라고 불렀는데 그들

행방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2002.

13) 「浮城物語立案の始末」(『明治文学全集15 矢野龍渓集』, 1970.11.25. 筑摩書房, 초출 『郵便報知新聞』에 1890.6.28.~7.1.까지 연재됨.) 371면.

14) 長山靖生 『日本SF精神史 完全版』(2018.3, 河出書房新社) 102면.

또한 "독자가 지루해하지 않고 한 장 한 장, 한 회(回) 한 회, 아무 생각 없이 전부 다 읽게 하려" 노력했다. 류케이나 '호치의 사천왕'의 소설, 그리고 모리타 시켄의 번역, 번안물 및 언문일치운동은 이와 같은 독자 중심의 창작 의식을 공통 기반으로 한다.

한편 1893년 전후한 시점, 『호치 신문』의 경영진 교체와 정론 중심의 대신문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겐사이는 소설 발표의 장을 『미야코 신문』(都新聞)으로 옮긴다. 레이스이는 여전히 『호치 신문』에 소설을 쓰고 있었지만,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그해 6월 종군기자로 한반도에 갔다가 10월 귀국하는데, 그때 두 사람한테는 상대 신문사로의 자리바꿈이 일어난다.[16]

실제로 『호치 신문』과 『미야코 신문』은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호치 신문』의 사장 야노 류케이는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의 입헌개진당(立憲改進党)의 핵심 브레인이었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미야코 신문』 또한 1892년 이후부터는 야노 류케이와 함께 입헌개진당을 만들었던 구스모토 마사타카(楠本正隆)가 사장이었다. 말하자면 두 신문 모두 입헌개진당에 뿌리를 둔 매체로 인적 네트워크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었다.

1902년 2월 『미야코 신문』의 사주(社主)이자 사장인 구스모토 마사타카는 달석병(疸石病)으로 사망하고 그의 아들 구스모토 마사토시(楠本正敏)가 사장이 된다. 이인직이 『미야코 신문』에 입사한 것이 1901년 10월, 이인직은 『호치 신문』과 『미야코 신문』이라는 입헌개진당 계열의 네트워크 속에서 문필활동을 시작한 셈이다. 나아가 대중 지향적 소신문인 『미

15) 위의 책 102면 또는 蛯原八朗 「明治文学雑誌年表」(『明治文学雑記』, 1935.7.20.) 210면.

16) "미야코 신문에 「사쿠라노 고쇼」(桜の御所)라는 소설을 연재하여 인기를 얻고 있던 무라이 겐사이를 「호치 신문」에, 호치의 레이스이를 「미야코 신문」에, 라는 식으로 이른바 진지(陣地) 교환의 이야기가 성립하여 같은 해(1894년-논자 주) 레이스이는 「미야코 신문」에 입사"했다고 한다. 위의 『近代文学研究叢書 第49巻』 439면.

야코 신문』은 물론, 『호치 신문』의 신문 대중화 작업, 그리고 그 중추적 구실을 했던 레이스이와 겐사이라는 당대 최고의 통속적 신문소설 작가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레이스이와 겐사이 두 사람은 자라온 배경이 유난하게도 비슷하다. 두 집안 모두 메이지 유신 때 좌막파(佐幕派)로 참전하였다가 패배하였고, 그로 인해 두 집안은 몰락, 도쿄로 상경한 후 매우 가난하고 불우하게 성장한다. 둘 다 메이지 유신 일본 사회의 비주류 몰락 사족이었지만 한편으로 한학(漢學)에 상당한 소양을 갖추었는데, 이런 공통의 성장 배경과 유학적 지식이 이인직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17]

『피눈물』의 작가 겐사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치 현(愛知県) 나고야 시(名古屋市)의 남동부 지역인 도요하시 시(豊橋市)에서 1863년 12월 태어났다. 그 집안은 대대로 유가(儒家)와 포술(砲術)로 번(藩)에 봉사하던 사족이었다. 메이지 유신 당시 막부 군에 가담했다가 패배한 후 집안은 점차 쇠락했고, 도쿄로 상경한 다음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돕고자 겐사이는 부업으로 종이 꼬는 일(こより作り)까지 했다. 유가(儒家) 집안이었던 만큼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한학 교육을 받았던 겐사이는 1873년 11월 이제 막 설립한 도쿄 외국어학교(東京外国語学校)에 입학했다가 다음 해 러시아어 과정에 들어간다. 1880년 9월 위 학교를 병으로 퇴학하기까지 7년 남짓한 기간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은 물론, 러시아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18]한다. 이러한 러시아 지식은 겐사이의 여러 작품에 드러나는데, 특히 『피눈물』의 등장인물 조형이나 중심인물의

17) 두 사람은 문학적으로도 대단히 가까워서 예를 들면, 『호치 신문』의 경영이 악화하였을 때 겐사이와 레이스이는 홋카이이도(北海道) 에조치(蝦夷地) 아이누 인의 러시아 투쟁 이야기인 『미소년』(美少年)이란 합작(合作) 단편소설을 1893년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인잡지』(庚寅雜誌)에 연재한다.

18) 『浮雲』의 二葉亭四迷 보다 훨씬 앞서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 전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松居松翁(松葉)는 겐사이를 "일본 최고(最古)의 러시아 문학 연구가 중 한 사람"이라 평가했다. (松居松翁「弦齋氏の諸作」『明治大正文学全集15 江見水蔭 · 村井弦齋』, 1930.12.15. 春陽堂)

이력에 면면이 나타난다.

생계를 위해 담배 행상 등 여러 궂은일을 하는 한편으로 당시 신문사에서 모집한 '현상 논문'에 응모하여 여러 차례 입상한다. 그중에서 "요코하마의 어떤 영자(英字)신문에 응모해서도 입상"[19]하는데, 그 포상이 입상자에게 외국에 갈 수 있는 여비를 주는 것이었다. 이때 겐사이는 이를 받아 처음에 러시아로 갔다가 188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간다.

영어를 못하는 겐사이는 러시아인 집안에서 허드렛일하며 영어 공부를 한다. 이때 『경국미담』의 경이적인 성공으로 1885년부터 유럽과 미국을 돌던 야노 류케이와 그와 동행하던 모리타 시켄을 188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87년 3월 겐사이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귀국하는데, 귀국 후 몇 가지 사업에 도전하지만 실패한다. 1888년 류케이의 도움으로 『호치 신문』 객원기자가 되었고, 또 류케이가 그 창립위원이었던 도쿄 전문학교(東京専門学校, 현 와세다 대학)에 입학한다. 그러나 생활고로 인해 학교를 중퇴, 그 대신에 1890년 『호치 신문』에 정식 기자로 입사하는데 이때 류케이에게서 겐사이(弦齋)라는 호(号)를 받았다[20]고 한다.

1890년 7월 「익명 투서가」(匿名投書家)란 소설을 『호치 신문』에 연재(1890.7.11.~8.10.)하면서 본격적인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된 겐사이는 다음 해 『호치 신문』에 연재한 『작은 고양이』(小猫)가 구독자들에게 큰 호평을 얻는다.[21] 그러던 와중 『호치 신문』은 다시 정론(政論) 중심의 대신문으로 회귀하였고 이로 인해 신문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졌는데 이때부터 겐

19) 위의 『近代文学研究叢書 第27巻』 258면.

20) 暮村隠士 「猫に依て成功せる二文士村井弦齋と夏目漱石」(『新公論』, 1907.9.1.)에 의하면 류케이가 겐사이에게 호를 주면서 「자네의 문장은 앞으로 활처럼 휘지 말고, 활시위처럼 짧아야 한다.(君の文今後は弓の如く曲らず弦の如く短かるべし)」라 충고했지만, 결국 장황한 문장을 고치지 못했다고 한다.

21) 위의 책 『近代文学研究叢書 第27巻』 260면. 이 작품을 일본 근대 '가정소설'의 효시로 꼽는 경우도 있다. 위의 책 瀬沼茂樹 「家庭小説の展開」, 313면.

사이는『미야코 신문』에 소설을 발표[22]하기 시작한다.

한편『호치 신문』이 정치 중심의 대신문으로 되돌아가자 판매가 부진해졌고,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1894년 오쿠마 시게노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사주(社主) 미키 젠하치(三木善八)가 미노우라 가쓴도(箕浦勝人)를 사장으로 두고 대대적인『호치 신문』개혁을 추진한다. 야노 류케이가 추진했던 대중 친화적인 신문 개편 작업을 위해 미키 젠하치는 당시『미야코 신문』에서『사쿠라의 고쇼』(桜の御所)로 엄청난 인기[23]를 끌던 겐사이를 편집총리(編集総理=현 편집부장)로 다시 영입, 독자 본위의 편집방침을 선언한다. 그리고『호치신문』은 청일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하에 1894년 12월 26일 다음과 같은「선언대요」(宣言大要)를 발표한다.

> 하나, 호치 신문은 고등(高等)한 에이리 신문(絵入新聞)이 된다. 과거 대신문(大新聞)이라 불렸던 대부분의 신문은 주의(主義)가 편벽(偏僻)하고 문자(文字)가 길굴(佶屈)하였으며, 소신문(小新聞)이라 불렸던 대부분의 신문은 주의가 야비하고 문자가 외설(猥褻)했다. 전자는 속인(俗人)이 알기 어렵고, 후자는 사군자의 가정(家庭)에 들어갈 수 없었다. 오늘날의 사회는 실로 중용(中庸)을 얻은 신문이 부족하다. 지금 호치 신문은 그 중용으로 나아가 가장 평이(平易)하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정대(正大)하면서 가장 보통(普通)의 신문이 될 것이다.[24]

"평이"와 "고상"함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던『호치 신문』은 또

22) 이 시점에도 겐사이는 여전히『報知新聞』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신문 3면, 즉 사회면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무급(無給)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都新聞』에 소설을 연재했다고 한다.(高木健夫,『新聞小説史稿』, 1964.4.25. 三友社) 126면.

23) 이와 관련해서 松居松翁는「이「사쿠라노 고쇼」발표 2, 3년 전부터 이미 문명(文名)이 떠들썩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 작품이 한번 나오자 통속작가의 태두가 되었다.(此「桜の御所」の発表二三年前から、既に文名嘖々として、世間の耳目を聳動して居たのであるが、此作一出、通俗作家の泰斗となつてしまつた)」고 보고하고 있다.(위의 글「弦齋氏の諸作」)

24) 위의 책『報知七十年』(36면)에서 재인용.

다른 한편으로 상무(尙武)와 군국(軍國)을 위해 이바지할 것을 선언한다. 이는 1894년 7월 청일전쟁 발발이란 시대적 환경과 이에 부화했던 일본 국민의 신문 수요에 호응하는 것이었다.

이때 레이스이와 겐사이가 혁혁하게 공헌한다. 재정이 어려웠음에도 호치 신문사는 마에가와 구마토(前川九萬人)와 레이스이를 청일전쟁 특파원으로 한국에 파견, 당시 최대 관심사인 청일전쟁의 전황(戰況)을 전한다. 「한산풍운록」(韓山風雲録, 1894.6.19.~8.2)을 비롯하여 「종군입경기」(従軍入京記, 1894.7.18.), 「평양공함기」(平壤攻陷記, 동 10.1), 「진중잡기」(陣中雜記, 1894.10.23.~11.12) 같은 전쟁 보도를 연이어 신문에 게재한다.

레이스이의 전황 보도와 함께 겐사이는 1895년 1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청일전쟁에 육군과 해군으로 참전한 형제의 우애를 다룬 『아사히 사쿠라』(旭日桜)란 작품을 『호치 신문』에 싣는다. 뒤이어 『어용상인』(御用商人, 1895.5.7.~31.)을 연재하는데 갑자기 이를 중절(中絶)하고, 그 대신에 『아사히 사쿠라』와 같은 종류의 "전사(戰事) 소설"[25]인 『피눈물』(血のなみだ)을 연재한다. 청국과의 강화조약 이후 삼국간섭으로 요동 반도 반환을 결정, 이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반영한 소설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피눈물』은 그 당시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듯하다.

> 소설로서는 열작(劣作) 중에서도 극(極)이다. 체제도 갖추지 못했고 문장도 아름답지 못하며, 거기에 문취(文趣)에 여정(餘情)이 없다. 나는 이런 소설을 쓰고 염연(恬然)한 겐사이의 마음이 수상하다. 듣기로 판매량 많기로는 겐사이가 최고라 한다. 그런데 겐사이의 저작은 나올 때마다 더 열등하다. 이는 독시(讀詩) 사회의 취미가 여전히 하졸(下拙)하기 때문으로 거사(居士)의 저작처럼 속이(俗耳)에 들어가기 쉬운 것은 많이 팔리긴 하겠지만 판매량 많은 것에 안주한다면 비웃을 만한 치한(痴漢)이다. 심지어 시인으로 문단에 선 이상 독시 사회 취미의 상진(上進)을 꾀

25) 위의 『近代文学研究叢書 第27巻』 292면.

> 해야만 한다. 쓸데없이 독자의 뜻을 좇아 그 기분을 상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문계(文界)에 불충(不忠)한 자다. 겐사이 거사 지금이라도 마음을 저작물에 쏟지 않는다면 결국 거사를 장사꾼[商街]으로 간주해도 거사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26].

위 비평문은 1896년 1월 21일 춘양당(春陽堂)에서 단행본이 나온 다음에 이 작품을 비평한 문장이다. 『피눈물』의 상업주의적 경향성을 신랄하게 비판한 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소설이 '독자의 뜻'에 부합하여 '속이'(俗耳)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소설이란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비록 '장삿꾼'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피눈물』을 비롯한 겐사이의 소설과 『호치신문』의 독자 본위의 사업 개편은 그동안 극도로 위축되어 「불과 3천 5백 부를 찍고 있었는데 지면 개혁의 결과 1년 후에는 발행 부수가 2만 부수를 넘게」[27]될 만큼 엄청난 성과를 낸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적 호응은 겐사이가 "문계(文界)에 불충(不忠)"을 무릅쓰고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원동력이었고 이인직이 겐사이에게 착목한 지점이기도 하다.

3. 무라이 겐사이 『피눈물』(血のなみだ)의 줄거리

1894년 7월에 시작된 청일전쟁은 요동 반도와 산동 반도를 장악한 일본이 중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침략할 우려가 생기자, 다음 해 3월부터 전

26) 「新刊 血の涙」(『裏錦』, 1896.5.15.). 이외에도 예를 들면 「婦人子女向の好讀本なり (중략) たゞ小說として大人識者の一顧を博するに足らざる」(『早稲田文学』, 1896.3. 「新刊 六種」), 「主人か作の如きは之を空中樓閣躰とでも稱する」(『文学界 (40)』, 1896.4. 「血のなみだ」)처럼 한편으로 작품의 대중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술적 완성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27) 村井弦齋의 「年譜」(『現代日本文学全集34 歷史·家庭小說集』(改造社, 1928.6.1.) 한편 高木健夫의 『新聞小說史稿』에서는 겐사이의 신문소설로 3천5백 부에 불과하던 판매 부수가 「3만, 5만까지 늘었다.」(128면)고 소개했다.

쟁을 끝내고자 청은 일본과 협의에 들어간다. 4월 시모노세키(下関)를 방문한 이홍장은 결국 이토 히로부미와 강화조약을 체결, 대만과 요동 반도 등을 일본에 할양하기로 한다. 그러나 4월 23일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일본 정부한테 이를 반대한다는 통보를 보냈고, 삼국간섭에 대해 5월 4일 일본 각의에서 요동 반도 반환을 결정, 그동안 비준을 미루던 청과 5월 8일 강화조약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청일전쟁이 끝난다. 그러나 청국 내에서는 비준 반대 운동이 일었고 대만 내에서도 무장 투쟁이 펼쳐진다. 그뿐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삼국간섭 반대 여론이 들끓으면서 그 유명한 '와신상담'이란 구호 하에 일본인의 러시아 반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무라이 겐사이의 『피눈물』은 이와 같은 배경하에 등장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겐사이는 청일전쟁에 관한 군국주의 소설 『아사히 사쿠라』를 연재했고, 뒤이어 5월 한 달 동안은 『어용상인』이란 작품을 연재한다. 그러나 삼국간섭으로 인한 대규모 반대 운동이 일자 겐사이는 『어용상인』을 중단하고 삼국간섭과 요동 반도 반환 반대 운동을 배경으로 『피눈물』이란 작품을 6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62회, 각 회차에 소제목을 붙여 『호치 신문』에 연재한다. 이처럼 『피눈물』은 삼국간섭에 분노하는 '독자의 뜻'에 호응하는 '통속성'을 깊이 반영하고 있다.[28]

이하 다소 장황한 문장이 되겠지만, 이후의 논의를 위해 국내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 『피눈물』의 줄거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소개한다.

> 작품은 11, 2세 정도의 어린 소녀 오스즈(お鈴)가 여름 초입 뒷산에서 꽃을 찾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동네 친구인 14, 5세 정도의 소년 이사무(勇)의 도움으로 들국화 몇 송이를 얻어 아버지 가네이시 겐키치(金石堅吉) 대위의 영전에 바친다. 가네이시 대위는 청일전쟁에 참전한 군인으로 신문 등에서는 정신착란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건백서'를 쓰고, "친구들의

28) 이하 『피눈물』의 작품 본문 인용은 1896년 1월 21일 춘양당(春陽堂)에서 발행한 단행본에 따랐으며, 그 면수만 표기한다.

시체를 이향(異鄕)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 귀국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금주(金州) 성내(城內) 벚꽃 나무 밑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훌륭하게 할복"(3면)[29] 자살한다.

가네이시 대위의 아내 오타미(お民)는 28, 9세 정도의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되는데, 그녀는 죽은 남편의 유지(遺志)를 지키며 수절할 각오로 산다. 함께 사는 60세가량의 계모 오테쓰(お鉄)는 오타미를 본인의 조카인 도로쿠(藤六)에게 시집 보내려고 오빠인 고리대금업자 와시즈카 로스케(鷲塚魯助)와 모의한다. 집문서와 미망인 보상금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오타미와 도로쿠의 결혼을 획책한 것인데, 오타미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오테쓰는 오타미를 폭행까지 하면서 결혼을 강요한다.

재가하느니 차라리 죽을 작정이었던 오타미는 와시즈카 부자가 방문하기 전날 메이지 유신 때 막부 군대인 쇼기타이(彰義隊)로 참전했던 아버지의 먼 친척이 시즈오카(静岡) 방면에 있다는 막연한 얘기만을 믿고 집을 나온다. 오타미는 이상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남편의 편지 2, 3통과 평상시 소지하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만 들고 오스즈와 함께 도쿄의 서쪽 끝 가와사키(川崎) 역까지 밤새 걸어간다. 그곳에서 가지고 있던 돈으로 시즈오카 방면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인 고즈(国府津) 역까지 기차를 탄다. 기차 안에서 가네이시 대위의 자살과 시국에 관한 서생(書生), 상인(商人), 관인(官人)의 대화를 엿들으며 고즈 역에 도착한다.

고즈 역에 도착한 후 오타미 모녀는 여인숙 겸 찻집에 들어가 1인분만의 식사를 시켰다가 하인한테 들키고, 오타미가 그 창피함에 급체에 걸리는 소동이 인다. 두 사람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가게 주인은 오타미에게 약을 주며 편히 쉬도록 권유해 그곳에서 다음 날까지 머무는데, 마침 청일전쟁에서 귀환하는 이시이 데쓰노스케(石井鉄之助) 상등병(上等兵)이란 군인의 환영 인파와 맞닥뜨린다. 이시이 상등병은 바로 가네이시 대위의 중대원으로 귀성 중에 들른 도쿄에서 오타미가 바람이 나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오테쓰한테서 들었고 이 사실을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말

29) 본문 중에 가네이시 대위가 삼국간섭으로 인한 요동 반도 반환에 분개하여 죽었다고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전쟁은 끝났지만, 귀국하지 않고 "분사"(憤死)했다고 표현한다.

하며 분개한다. 옆방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오타미는 기절하였고, 이 소동 중에 오타미 모녀를 쫓아온 이사무와 그의 아버지 구사카베(日下部) 노인이 등장, 오타미에 대한 이시이의 오해를 푼다. 그리고 구사카베 노인을 통해 와시즈카 부자가 오타미 모녀를 쫓고 있다는 소식을 안 이시이는 자신의 고향 집인 소가나카무라(曾我中村)에 두 사람을 숨기기로 한다.

지역의 유력자인 이시이 상등병의 부모는 구사카베 노인 등과 논의하여 오타미 모녀를 마을 전체가 보호하기로 하고, 오타미는 그 대가로 이시이 집안에서 삯바느질을 하며 지내기로 한다. 그러던 중 오봉(お盆) 축제를 보러 외출했던 오스즈는 주변을 수소문하던 와시즈카 부자에게 들켜 붙잡혔지만, 오타미는 와시즈카 부자가 이시이 집에 들이닥치기 전에 "산 중 별천지"(119면)인 스스가야(煤ヶ谷)란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 더는 찾지 못하게 된다.

직접적인 친인척이란 이유로 경찰도 어떻게 하지 못한 채, 오스즈는 와시즈카 부자에게 도쿄로 끌려가 오테쓰의 시중을 들며 하녀처럼 생활한다. 술에 절어 사는 오테쓰는 와시즈카 부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다음이었고, 마침내 병으로 위독해지자 이 소식을 듣고 사망 직전 귀가한 오타미에게 참회한다. 한편 오타미는 구사카베 노인의 보호하에 러시아어를 3년간 공부,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시베리아 내지로 들어가 그곳에서 "훗날 천병(天兵)이 이 땅에 임(臨)하는 날이 있을 때 진두(陣頭)"(155면)에 나가겠다는 편지를 보낸다. 이때 오타미는 구사카베 노인에게 가네이시 대위의 유지를 뒤이을 군인과 오스즈가 결혼할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 부탁한다.

그로부터 갑자기 작품 내 시간은 흘러 오스즈가 20세, 이사무가 23세 되던 해, 이사무는 원래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유능한 외교관이 없는 현실을 비판하며 외교 관료의 길에 들어선다. 이사무는 장래가 촉망되는 외교 청년으로 성장하지만 "외교의 비법은 외국인 눈치를 보며 손해 보지 않는 것에 있고 내치의 묘법(妙法)은 인민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데 있다"는 현실 일본의 "비굴주의"(156면)에 혐오감을 느낀다.

이사무의 염세적 태도에 오타미는 바로 이런 현실이기에 이사무 본인이 훌륭한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사회 비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개선을 위해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큰 깨달음을 얻은 이사무는 "대영웅도 내조의 도움"(160면)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장면 장면마다 오스즈를 도와줬던 이사무는 오스즈에게 좋은 감정을 품지만, 군인의 아내가 되어야만 하는 오스즈를 단념할 수밖에 없다. 이사무의 어머니 또한 며느리로 오스즈를 원하고, 오스즈 또한 이사무에게 연정을 품지만 구사카베 노인은 육군 대위 아사히나 도라오(朝比奈虎雄)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윗감을 찾아온다.

이에 오스즈와 이사무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이때 이사무는 급하게 러시아 영사관 파견의 기회를 얻는다. 또 마침 "아직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과 관련하여 외국과 어려운 교섭 담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일대 파열(破裂)"(193면)이 생길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에 혼담이 오가던 아사히나 대위는 물론 이시이 상등병도 비밀리에 소집되어 출병하게 되었고, 오스즈의 결혼 이야기는 잠정적으로 사라진다. 『피눈물』은 이렇게 청일전쟁 이후 삼국간섭으로 발생한 전쟁 유가족 이야기에서 출발해 러일전쟁 발발을 예상하면서 끝난다.

4. 『피눈물』과 『혈의 누』의 비교

우선 『피눈물』과 『혈의 누』의 유사점은 주요 등장인물의 구성과 전체적인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피눈물』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장을 잃은 어머니와 딸, 그리고 그 딸의 어린 시절 조력자이자 성장 후 배우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남자친구 이사무 등이 등장한다. 이는 『혈의 누』 주요 등장인물 구성과도 유사해 어머니 최춘애와 옥련, 그리고 어린 옥

련의 조력자이자 결혼을 약속하는 구완서 등이 등장한다. 『피눈물』의 오스즈 아버지 가네이시 대위는 옥련의 아버지 김관일과는 달리 사망하였지만, 스토리 전개상 두 아버지는 다른 주요 인물과 비교해 존재감이 현격히 떨어진다.

『피눈물』과 『혈의 누』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된다. 하나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오타미가 곤궁한 처지에 처하게 되고 이를 피하고자 도망, 결국 러시아로 떠난다는 전반부 이야기와 어머니와 헤어진 어린 딸 오스즈가 도쿄에 돌아와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한 후 결혼을 둘러싸고 좀처럼 이뤄지지 못하는 이사무와의 결혼 이야기가 후반부를 형성한다. 오타미가 러시아로 떠나 작품에 전혀 등장하지 않게 된 것은 50회부터이지만, 오타미가 추적자 와시즈카를 피해 "산속 별천지"인 스스가야로 숨은 이후(36회)부터 오타미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오직 오스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또한 『혈의 누』도 비슷하여 『만세보』에 연재된 횟수 총 50회 중 전반부의 17회까지는 전쟁 통에 고생하는 옥련의 어머니 최춘애가 이야기의 중심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본과 미국에서 성장하는 옥련 이야기이다. 어머니와 딸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단절되는 『피눈물』에 비해, 『혈의 누』 후반부의 옥련 중심 이야기에는 최춘애 등이 자연스럽게 뒤섞여 나타나지만, 기본적인 작품 구성은 모녀, 특히 '가부장'이 부재하는 아내와 딸의 개별적인 두 가지 이야기가 단락적으로 전개된다.

오스즈가 12세, 옥련이 11세 이후부터 부모 없이 성장하는 두 사람의 내력은 작품 내에서 대부분 소거된다. 그러다 각각 20세, 16세가 되는 시점부터 이야기는 새롭게 시작한다. 이 이후부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스즈와 옥련의 결혼과 관련한 일화를 주요 소재로 삼는다. 두 작품 모두 축복받는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열린 결말', 즉 결혼할지 말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로 끝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즉 결말을 열어놓는 것도 그러하지만, 독자의 호기심을 소구[30] 하고 작품을 연장해서 써 내려갈 단초를 제공하는 방법론 또한 두 작품의

유사성을 배가시킨다.

실제로 『피눈물』에서 “구사카베(日下部) 노인은 오스즈 아가씨에게 당신 어머니께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군대의 진두에 나타나실 것”(193면)이라며 작품이 끝난다. 앞서 소개한 작품 줄거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머니 오타미의 등장은 오스즈와 이사무의 결혼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도 하다. 또 『혈의 누』가 “아랫권은 그 여학생이 고국에 돌아온 후를 기다리오.”(60면)[31]라 말하면서 ‘아랫권’을 예고한 것처럼 옥련의 결혼 이야기를 계기로 『제국신문』에 연재된 『혈의 누(하)』(1907.5.17.~6.1)나 『매일신보』에 연재한 『모란봉』(1913.2.5.~6.3)을 예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겐사이의 『피눈물』과 이인직의 『혈의 누』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전쟁으로 ‘가부장’을 상실한 아내의 등장이다. 이들 여성은 연령대가 대체로 비슷하다. 청일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피눈물』의 오타미는 28, 9세 여성이고, 전쟁 통에 남편과 헤어진 『혈의 누』의 최춘애는 29세(30세 될락말락) 여성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최춘애의 남편 김관일은 살아 있지만, 그는 아내와 딸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처자만 구구히 생각하면 나라의 큰일을 못”(9면)한다며 일찌감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사실 오타미와 최춘애 두 사람은 모두 계모 슬하에서 성장한다. 최춘애는 친부가 존재하고 오타미는 메이지 유신에서 친부를 잃었지만, 최춘애가 친부의 사랑을 받았던 만큼 오타미 또한 양부에게서 큰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두 사람 모두 계모의 미움을 받는다. 계모의 부당한 처우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자애로운 아버지의 슬하에서 어려움을

30)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06년 10월 10일 『만세보』에서 『혈의 누』 연재가 끝나고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인 1906년 12월 8일 「小春月令」에 “小說記者 足下 玉蓮의 消息을 왜 다시 傳ᄒᆞ지 아니ᄒᆞᆯ시오”라며 연재를 촉구하는 독자의 투서가 있다.

31) 이하 『혈의 누』 인용은 권영민 등 편 『한국 신소설 선집1』(2003.2. 서울대학교 출판부)에 의거하고, 그 면수만 표기한다.

극복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오타미와 최춘애는 또다시 의지할 만한 남편을 만나고 그들이 집에 없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보내며 집안을 지켜낸다. 두 여성은 공통으로 계모 밑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아버지를 곤궁에 빠뜨리는 일 없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 성공적으로 결혼 생활을 한다.

그렇게 현명한 두 여성에게 결혼 후 남편이란 존재는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 남편을 잃은 오타미는 계모 오테쓰가 도로쿠와 결혼을 강요하면서 폭행을 하자, 재혼으로 남편의 명예를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오스즈에게 죽은 남편의 유언을 잘 받들라 말하고 "내일이 되면 이미 없어질 몸"(35면)이 되리라 자결을 결심한다. 배우자의 상실로 죽음을 결심하는 이는 최춘애 또한 마찬가지여서 "남편이 살아오거니 하고 고대할 때는 마음을 붙일 곳이 있어서 살아 있었거니와, 죽어서 못 오거니 하고 단망하니 잠시도 이 세상에 있기가 싫다."(12면)며 대동강에 빠져 죽으려 한다. 두 집안의 남편들을 비중 있게 그리지는 않지만, 가부장의 부재는 그녀들의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최대 위기 상황이었던 셈이다.

그렇지만 오타미는 마음을 바꾸고 남편의 유업인 요동 반도 회복 후, 남편이 할복했던 금주에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리란 각오를 다지고 계모한테서 도망친다. 최춘애 또한 남편의 생존을 확인하고는 "나는 이 집을 지키고 있다가 몇 해 후가 되든지 이 집에서 다시 가장의 얼굴을 만나"(21면)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 이렇게 남편의 가계(家系) 유지를 삶의 목표로 삼는 오타미와 최춘애의 모습은 너무 비슷하게 중첩되어 보인다.

이인직은 남편이 부재하는 기혼 여성 이야기를 작품의 단골 소재로 종종 삼는다. 『치악산』의 춘천댁 길순, 『은세계』의 옥순 모 본평 부인은 물론, 일본어 소설 『과부의 꿈』에 나오는 '과부' 또한 "나이가 32, 3"(齢は三十二三) 정도의 미망인이다. 게다가 『혈의 누』만 하더라도 오타미와는 너

무나도 대비되는 젊은 일본 미망인이 나온다. 오타미와 마찬가지로 요동반도에서 남편이 전사한 여성으로 그녀 또한 "삼십이 될락말락 하니 옥련의 모친과 정동갑" 정도로 "눈에 살기"가 있고, 얼굴이 "희기는 희나 청기"가 돌며 "얌전도 하고 쌀쌀"(26면)한 정상(井上) 부인이 그러하다.

또 미망인의 재혼 문제가 스토리 전개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두 작품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오타미의 재취 거부가 『피눈물』의 전체 사건 전개의 동기가 된 것처럼 일본 정상 부인의 재혼 문제로 "눈치 꾸러기"(30면)가 된 옥련이 『혈의 누』 후반부 이야기의 발단이 된다. 이인직은 과부의 재혼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부가한다.

> 조선 풍속 같으면 청상과부가 시집가지 아니하는 것을 가장 잘난 일로 알고 일평생을 근심 중으로 지내나, 그러한 도덕상의 죄가 되는 악한 풍속은 문명한 나라에는 없는 고로, 젊어서 과부가 되면 시집가는 것은 천하만국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정상 부인이 어진 남편을 얻어 시집을 간다.(29면)

청상과부가 재혼하지 않는 것이 "도덕상의 죄"란 이인직의 규정에서 분명 『피눈물』의 오타미와 구분되는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인직이 청상과부 재혼이 "도덕상의 죄"라 단정했던 것처럼 겐사이도 여성의 재혼에 꼭 반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녀가 없는 "청상과부"는 결혼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32]한다. 젊은 여성의 재취 문제를 포함한 여권(女權) 신장 문제에 두 작가가 지대한 관심을 뒀다는 점은 분명[33]한데, 『피눈물』

32) 村井弦齋「離婚と再婚の可否を論ず」(『婦人世界』, 1909.11.1.)에서 겐사이는 "젊은 미망인 중 자녀 없는 이는 스스로 독립할 만한 기능을 지니지 않은 이상, 결국 부모나 형제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부인 본래의 능력을 버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하나의 손실일 것입니다. 그보다는 다시 결혼하여 가정 경영, 자녀 교육의 능력을 발휘하는 편이 사회적으로 보면 하나의 이익"이라며 재혼을 장려한다.

33) 이는 무라이 겐사이 뿐 아니라, 이인직 주변에 있었던 도쿄 정치학교의 마쓰모토 군페이 또

의 오타미와 비슷한 처지인 『혈의 누』의 정상 부인을 재혼하게 한 것은 옥련이 정식 자녀가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혈의 누』의 정상 부인을 오타미나 최춘애와 대조시켰을 때, 악역으로서의 정상 부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작품 전개상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

그 한편으로 이사무와 구완서, 두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인식, 결혼에 대한 견해도 따지고 보면 대단히 유사하다. 이사무는 오랫동안 국가의 일익을 담당하는 외교관이 되고자 매진하던 중, 오스즈가 충고한 한마디 말로 아내(또는 연인)라고 하는 "좋은 친구[良友]가 좋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것이 오히려 저를 괴롭히는 원인"(186면)이 되었다며 외교관으로 "대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이사무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오스즈는 "현처(賢妻)"인 동시에 "좋은 친구"(161면)로 그들의 부부 관계는 동지적 관계로 치환된다. 이는 구완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구완서가 옥련에게 함께 더 공부하다 고국에 돌아가 결혼하자 청혼한 그 날도 "두 사람의 마음에는 혼인 언약의 좋은 마음은 오히려 둘째가 되니 옥련 낙지 이후에는 이러한 즐거운 마음이 처음"이라 전한다. 여기서 말하는 옥련의 첫 번째 "즐거운 마음"이란 구완서가 "연방도"를 수립하고, 옥련 본인은 "부인도 나라에 유익한 백성이 되고 사회상에 명예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마음"(55면)인 것이다.

남녀의 연애 감정을 동지애로 변환시키는 것이 겐사이의 다른 소설은 물론, 이인직 소설과 개화기 계몽소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양태이기는 하다. 다만 가정생활을 동지적 결합으로 형상화하고, 남녀의 감정, 그 중에서 가정에 안주하려는 남성의 태도와 인식을 강력하게 경계하는 모습은 이후의 여타 가정소설과는 결을 달리하는 겐사이와 이인직 소설의 정치소설적 요소라 하겠다.

그 이외에도 짧은 장면이기는 하지만, 두 작품 안에 겹치는 이미지를

한 일찍부터 여권 신장과 여성 참정권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두 작품은 모두(冒頭)에 뭔가를 찾으면서 시작한다. 『피눈물』은 오스즈가 죽은 아버지에게 헌상할 들꽃을 찾았다면, 『혈의 누』 최춘애는 옥련을 찾고 있어 그 긴박감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뭔가를 찾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은 유효했을 것이다. 또 오타미 모녀가 가출하여 시즈오카 방면으로 가다가 돈이 없어 중도인 고즈 역에 하차해 여인숙(旅人宿)에 들어가는 장면은 오사카에서 도쿄 방면 기차를 탄 옥련이 차비가 부족하여 교토 인근 소도시인 '자목(茨木)' 시까지 가서 하차한 후 구완서와 함께 여인숙에 들어가는 장면과 비슷하다. 그리고 남편을 찾다 봉변을 당할 뻔한 최춘애가 일본 헌병에 붙들려 헌병부로 가는 길에 갑자기 옥련 집에서 키우는 개가 등장한다. 『피눈물』에서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오타미 모녀가 어두운 뒷길로 걸어갈 때 집에서 키우던 개가 등장하여 역까지 동행한다. 도중에 오타미 모녀는 불심검문 하는 순사와 우연히 만나는데, "개와 순사는 나쁜 사이"(51면)라 애완견 포치(ポチ)가 순사를 향해 맹렬하게 짖는 장면 또한 『혈의 누』에서 "헌병이 칼을 빼어 개를 치려하니 개가 쫓겨 들어가며 짖"(5면)는 장면과 비슷하다. 치안을 담당하는 순사와 헌병이 등장, 그 대극에 개를 대치시키는 의외의 장면이 두 작품의 재미를 가증한다.

무엇보다도 겐사이의 『피눈물』과 이인직의 『혈의 누』는 매일매일의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해 지속적인 독서를 견인해 내야 하는 일간(日刊) 연재소설이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현재적 관심사와 긴밀하게 이어진다. 『혈의 누』는 1894년, 『피눈물』은 1895년, 청일전쟁 전후한 시점에서 시작하고, 1902, 3년[34] 러일전쟁 발발 직전에 끝난다. 실제 발표 연도는 『피눈

34) 이인직의 『혈의 누』는 1894년 시점에서 시작하여 어머니 최춘애가 옥련의 편지를 받는 장면인 광무 6년, 즉 1902년에 끝난다. 그러나 작품 속 옥련은 청일전쟁 때 7살이었고, 미국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띄운 것은 16살, 따라서 1903년이 작품의 마지막 배경이어야만 한다. 한편 『피눈물』은 1895년 15살인 이사무가 23살이 되기 때문에 작품은 1903년, 러일전쟁 직전에

물』이 청일전쟁 직후, 『혈의 누』는 러일전쟁 이후에 쓰인 작품으로 두 작품 모두 전쟁에 대한 독자의 경험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 시점에 발표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피눈물-혈의 누'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는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피눈물』에서 제목과 같은 '피눈물'이란 단어는 작품 2회차분에서 죽은 가네이시 대위의 영단에 들국화를 바치며 오스즈가 울자, 그녀를 격려하던 오스즈와 이사무가 함께 대화하는 장면에 나온다.

> 사실 군인의 아내는 좀처럼 울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울어야 할 때이다. 4천만 동포 누구 하나 눈물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중에는 소년도 포함될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글썽거리면서 「아주머니, 아저씨가 너무 안타까운 일을 하셨어요.」라며 위로하려는 마음씨, 소녀의 어머니는 급히 소매로 눈가를 닦으면서 희미하게 「그래요.」라 말하며 고개를 돌렸고, 소리 없이 소녀의 몸은 들썩거린다.
>
> 하늘은 구름이 끼면서 옅게 어두워졌고, 셋, 넷, 다섯 뚝뚝 떨어지는 것은 비인지, 피눈물, 마치 천지도 통곡하는 듯하다. (7면)

동시대의 사전적 의미로 '피눈물(血淚)'이란 말은 "강개(慷慨), 비분(悲憤) 등 너무 격앙되어 흐르는 눈물"[35]이라고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쓰였던 단어로 한중일 삼국에서 큰 차이가 없을 듯한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역시 "강개"이고 "비분"이다. 『피눈물』의 "비분"과 "강개"란 가네이시의 "분사(憤死)"에서 기인한다. 이는 오스즈 모녀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4천만 동포"에게 공통되는 분노의 눈물이다. 다시 말해 일본인의 입장에서 외적에게 '강탈' 당한 요동 땅이 가장(家長)인 가네이시의 상실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오타미의 부당한 재가(再嫁) 강요와 모녀의 고난

끝난다.

35) 藤井乙男, 草野清民 編『帝国大辞典 第1版』(1896.10, 三省堂) 603면.

이 시작된 것이다. 느닷없이 초래된 오타미 모녀의 개인적 고난과 눈물이 오테쓰나 와시즈카 부자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피눈물', 그것도 "천지도 통곡"할 "4천만 동포"의 '피눈물'로 치환되기 위해서는 외세의 '부당한 강압'과 그에 따른 분노를 수반해야 했다.

한편『혈의 누』본문에 '눈물' 및 '울음'이란 단어는 곳곳에 등장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강개"와 "비분"을 내포하는 '혈루', 또는 '피눈물'이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혈의 누』에서 악한이라 할 만한 인물은 위에서 언급한 정상 부인과 노파, 또는 작품 초반 잠깐 등장해 최춘애를 겁탈하려 했던 남성 이외에는 없다. 최춘애와 옥련이 이들 악한을 향해 분노하기는 하지만, 그 분노를『피눈물』의 '피눈물'처럼 국민적인 분노로 승화시켜 표현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혈의 누』란 제목을 붙였음에도 작품 속에서 '혈루' 또는 '피눈물'이란 단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일지 모른다.

다만『혈의 누』광고에 다음과 같은 '혈루'란 말을 찾아볼 수 있다.

> 此新小說은 純國文으로 昨年秋에 萬歲報上에 續載ᄒᆞ얏던거시온ᄃᆡ 事實은 日淸戰爭에 平壤以北人民이오 鬪에 鯨背가 坼홈과 如히 兵火를 經ᄒᆞᄂᆞᆫ 中에 平壤城中에 玉蓮이이라ᄂᆞᆫ 金氏 女兒가 無限ᄒᆞᆫ 困難을 經ᄒᆞ고 外國에 流離ᄒᆞ며 留學ᄒᆞᆫ 實事가 有ᄒᆞ니 此小說을 讀ᄒᆞ면 國民의 精神을 感發ᄒᆞ야 無論男女ᄒᆞ고 血淚를 可히 灑홀 新思想이 有홀지니 此ᄂᆞᆫ 西洋小說套를 모範ᄒᆞᆫ 거시오니 購覽君子ᄂᆞᆫ 細讀ᄒᆞ심을 望홈 (『만세보』 1907.03.30.)

즉『피눈물』이 러, 프, 독이란 삼국간섭으로 요동 반도 반환을 강제당한 소위 '국권(國權) 유린'의 장에서 기획되었다면『혈의 누』또한 청일양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7-8면)이 터진 조선의 국권 침탈 현장이 그 배경이다. 타국 간 전쟁에 약소국 조선의 평범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그로 인해 '平壤城中에 玉蓮'이 갖은 고초를 겪으니 이것은 옥련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國民'이 '血淚를 可히 灑할' 이유인 것이다.

오타미가 시베리아로 숨어 들어가거나 오스즈가 외교적 무능에 낙담한 이사무를 격려함으로써 모녀의 '피눈물'을 초래한 외세를 끊임없이 소환했던 『피눈물』에 대해 이인직이 최춘애, 김옥련 모녀의 개인적 고난을 청과 일본의 패권 다툼으로 발생한 조선 '國民'의 '血淚'와 원활하게 연결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다만 겐사이가 외세로 인한 국권의 '유린'과 개인의 삶을 연결하려 했던 것처럼 이인직이 청일 양국이란 외세 때문에 약소국 조선의 '國民'이 '血淚'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혈의 누』에서 그리고자 했던 의도만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두 작품을 긴밀하게 잇는 부분이기도 하다.

5. 나가며

이상과 같이 『혈의 누』와 『피눈물』은 공통의 구조와 창작 배경을 지닌다. 이인직은 1895년, 가정소설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직전에 발표된 겐사이의 『피눈물』에서 '가부장을 상실한 여성'이라는 당대 일본 가정소설의 클리셰를 근대 조선의 상황에 맞춰 『혈의 누』란 형태로 변주했다. 다만 『피눈물』은 앞에서 인용한 평가, 즉 "전사(戰事) 소설"이라는 평가처럼 외세의 침탈을 직접적으로 가정의 와해와 모녀의 고난으로 잇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대 담론과 가정을 직접 연결하는 스토리 전개 방법은 1900년대 이후의 가정소설과 변별되는 겐사이 소설의 과도기적 특성이다. 바꿔 말해 격돌하는 국제 정세를 일개 가정생활 및 어린 소녀의 성장 과정과 직접 관련짓고자 했던 겐사이의 창작 의도를 이인직이 착안하여 조선의 상황에 맞춰 『혈의 누』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주 26)처럼 동시대 비평가들은 『피눈물』을 "속이(俗耳)에 들어가기 쉬

운” 소설이고 “부녀자”의 호응만을 염두에 둔 상업 소설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한다. 그렇지만 이인직이 접했을 『호치 신문』의 이른바 ‘4천왕’ 중 한 명인 하라 호이치안(原抱一庵)은 겐사이의 문학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그 의의를 설명한다.

> 생각건대, 겐사이는 그 이상(理想)적 기초를 『커먼센스(常有識)의 원활한 발달』에 둔다. 혹박(酷薄), 잔인, 극냉(極冷), 극열(極熱)은 그 목적이 어떠하든 그가 결코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바다. 겐사이의 윤리는 커먼센스를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의 윤리이다. (중략) 그 소설의 의(意)가 향하는 바는 늘 부녀자(婦女子)의 품성을 고상하게 만드는 데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 함양하고자 하는 품성은 건전(健全)함을 보인다.[36]

겐사이는 “커먼센스”를 “원활하게 발달”시키기 위해 우선 부녀자들의 품성을 “고상”하고 “건전”하게 함양하고자 했다. 가정 내에서 ‘건전’하게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른바 ‘통속’적인 ‘가정소설’이 겐사이가 지향했던 소설이고, 『호치 신문』의 신문 대중화 방법이었다. 이는 비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1903년 일본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품이기도 했던 기쿠지 유호(菊池幽芳)는 『지쿄다이』(乳姉妹) 「서문」에서 “일가(一家) 단란한 사이에 읽어도 모두가 다 이해하기 쉽고, 또 얼굴 붉히는 일 없는” 소설을 쓰고자 했고, 이것이 ‘가정소설’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이인직이 1903년 5월 5일 『미야코 신문』에 「韓国新聞創設趣旨書」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인민에게 보통교육을 펼치고 개인 생활의 길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미의(微意)”를 구현하고자 했을 때, 그에게 무라이 겐사이의 『피눈물』을 비롯한 동시대 가정소설은 “인민” “보통교육”에 안성맞춤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1895년부터 1905년 전후 발생한 일본의 가정소설, 그중에서도 절대적

36) 原抱一庵「弦齋の小説(上 · 下)」(『国民之友』, 1895.7.23.~8.3)

인 인기를 끌었던 겐사이의 소설은 “혹박, 잔인, 극냉, 극열”한 당시 일본의 ‘관념 및 심각소설’의 안티테제로 등장하였지만, 그 한편으로 일본 정치소설이 대중화, 통속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소설 양식이다. 1890년대까지의 일본 정치소설 뒤를 잇는 1900년대 이후의 가정소설이란 문맥 속에 이인직의 『혈의 누』를 놓았을 때, 전근대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적 계몽의식과 대중소설로서의 통속적 설득력이라는 『혈의 누』의 ‘새로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私費移官」(『황성신문』, 1900.3.13.)
「圓覺社觀光의 鄕客談話」(『황성신문』, 1908.11.6.)
「演劇·映畵, 劇界·映畵界의 先驅者, 榮光의 朝鮮先驅者들!!」(『삼천리 제2호』, 1929.9.1.)
권영민 등 편『한국 신소설 선집1』(2003.2. 서울대학교 출판부)
「新刊 六種」(『早稲田文学』, 1896.3.)
「血のなみだ」(『文学界 (40)』, 1896.4.)
「新刊 血の涙」 (『裏錦』, 1896.5.15.)
「李人稙ノ行動」(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外務省外交史料館) 所収, 『伊藤公爵薨去後ニ於ケル韓国政局並ニ総理大臣李完用遭難一件』, 1909.12~1910.10)
暮村隱士「猫に依て成功せる二文士村井弦齋と夏目漱石」(『新公論』, 1907.9.1.)
矢野龍渓「浮城物語立案の始末」(『明治文学全集15 矢野龍渓集』, 1970.11.25. 筑摩書房)
原抱一庵「弦齋の小説(上·下)」(『国民之友』, 1895.7.23.~8.3)
村井弦齋「離婚と再婚の可否を論ず」(『婦人世界』, 1909.11.1.)

2. 단행본

다지리 히로유키,『이인직 연구』, 국학자료원, 2006.7.
高木健夫,『新聞小説史稿』, 三友社, 1964.4.25.
藤井乙男 草野清民 編,『帝国大辞典 第1版』, 三省堂, 1896.10.
小松緑,『明治外交秘話』, 千倉書房, 1936.10.11.
長山靖生,『日本SF精神史 完全版』, 河出書房新社, 2018.3
青木武雄,『報知七十年』, 報知新聞社, 1941.6.10.
澤村修治,『ベストセラー全史近代編』, 筑摩書房, 2019.7

3. 논문

강현조,「이인직 소설의 창작 배경 연구」,『우리말글』, 2008.8.
구장률,「신소설 출현의 역사적 배경」,『동방학지』, 2006.1.
표세만,「우키시로 모노가타리 논쟁(浮城物語論爭)의 의의-1890년대 〈문학〉의 행방을 중심으로」,『일본연구』, 2002.
_____,「이인직 문학의 주변-동경정치학교와 마쓰모토 군페이(松本君平)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2019.
「年譜」,『現代日本文学全集34 歷史ㆍ家庭小説集』, 改造社, 1928.6.1.
蛯原八朗,「明治文学雜誌年表」,『明治文学雜記』, 学而書院, 1935.7.20.
瀬沼茂樹,「家庭小説の展開」,『近代日本文学の構造1』, 集英社, 1963.3.
松居松翁, 「弦齋氏の諸作」, 『明治大正文学全集15 江見水蔭ㆍ村井弦齋』, 春陽堂, 1930.12.15.
昭和女子大学近代文学研究室 編,「村井弦齋」,『近代文学研究叢書 第27巻』, 昭和女子大学近代文化研究所, 1967.8.20.
昭和女子大学近代文学研究室 編,「遲塚麗水」,『近代文学研究叢書 第49巻』, 昭和女子大学近代文化研究所, 1979.6.15.

<Abstract>

The Surroundings of Lee In-jik's literature(2)

Pyo, Se-man

In order to understand Korea's first modern novel『혈의 누』, it is necessary to know the life of writer Lee In-jik, especially the literature he experienced in Japan. During his stay in Japan, the most popular genre was '家庭小説-domestic novel'. Among them, Murai Kensai(村井弦齋), a writer who is almost forgotten today, is an important person. In the process of turning the political newspaper『報知新聞』into a popular newspaper, Kensai became the most popular writer by serializing Popular fictions. And he published the same title『血のなみだ』as Lee In-jik's『혈의 누』in 1895. The story structure of this work is similar to that of Lee In-jik's work, in which the main character mother and daughter, who lost their husband to the Sino-Japanese War, overcome hardships, and various episodes related to marriage occur after the daughter grows up.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two novelists' creative intentions to portray the national sovereignty invaded by foreign powers through the keyword 'blood tears' and the resulting collapse of an ordinary family are also the same.

Key words: Lee In-jik, sinsosul, the new novel, Murai Gensai, the Tears of Blood, kateisyousetu, the domestic novel

투 고 일 : 2023년 1월 31일　　심 사 일 : 2023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 2023년 3월 8일　　수정마감일 : 2023년 3월 22일